

반다이산 분화로 인한 지형 변화

1888년 반다이산의 분화로 북쪽 봉우리인 고반다이의 산체 붕괴를 일으켰습니다. 이것이 암설 사태를 일으켰습니다. 이로 인해 마을을 완전히 매립시켰고 주요 하천의 흐름을 막아 광대한 지역이 침수되었습니다. 그 당시의 퇴적물로 히바라 호수나 오노가와 호수, 유명한 고시키누마 늪 등, 약 300개의 호소군이 형성되어 이 지역의 경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 현재 우라반다이(반다이산의 북쪽 지역)를 찾는 사람들은 히바라 호수에 가라앉은 신사의 도리이나 반다이산의 붕괴 흔적의 또렷한 단면 등, 자연재해로 인한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.